

‘B737-맥스’ 잇단 추락에도 국내 도입은 ‘예정대로’

대한항공·제주항공·티웨이 등 “사고원인 밝혀지면 조치할 것”
이스타 항공, 이번주 점검 완료
수평안전판 조작 등 집중 확인



B737-맥스 기종 항공기

미국 보잉의 차세대 주력기 B737-맥스의 잇따른 추락사고로 국토교통부가 같은 기종을 운용 중인 이스타항공에 정비사를 보내는 등 점검에 나섰지만 도입을 예고한 기존 항공사들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6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0대, 제주항공은 2022년부터 50대, 티웨이항공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4대의 B737-맥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B737-

맥스를 도입하는 계획은 현재 변동이 없다”며 “자세한 계약사항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미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B737-맥스는 현재 국내 2대가 운용 중에 있다. 이스타항공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2대를 들여와 현재 일본·태국 등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상반기 2~3대 추가 도입을 포함해 연내 총 4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점검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이 완

료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들을 이스타항공에 투입해 수평안전판 조작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불안을 고려해 국토부가 긴급히 조

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B737-맥스 기종 여객기가 이륙 6분만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진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의 여객기 역시 같은 기종이었다. 5개월 사이 2대가 추락한 셈이다.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자국 항공사가 운용하는 B737-맥스8 여객기에 대해 운항중단 조치를 내리고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항공기만 운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총 14대의 B737-맥스8 항공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종은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인 737의 4세대 모델로 지난 2015년 11월 초 도기가 생산됐으며, 2017년 5월 민간 항공사에 처음 인도됐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자동화 밀물 속, 고령층 유망 직업은? 반려견 도우미·사회복지사가 ‘유리’

대인서비스 등 비반복적 노동 적합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늘려야



자동화시대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에겐 반려견 도우미, 사회복지사, 숲해설가, 장애인 활동도우미 등의 직업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인서비스 등 비반복적인 일을 하는 이들 직업이 자동화 촉진 속도를 줄여 생계를 이어가야 할 고령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고령층을 단순 노무 종사자 등 자동화로 대체되기 쉬운 반복적 노동보다는 비반복적인 노동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직업 교육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자동화와 고령층 일자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5세 이상 고령층의 46.7%는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반복적 육체노동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 반면 비반복적 육체노동 비중은 22.1%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터치연구원은 고령층이 반복적 또는 비반복적 육체노동에 일정 부분 종사할 경우 자동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5% 수준일 때 고령화 지표 1% 증가시 자동화 지표가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반복적 육체 노동지표가 (OECD의) 75% 수준일 때 고령화 지표 1% 증가시 자동화 지표는 0.8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고령층이 비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할수록 자동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돼 로봇 등에 당장 일자리를 뺏길 우려가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자동화시대에서도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반면 연구원은 반복적 육체 노동지표가 OECD 국가들의 25% 수준일 때 고령화

구분	직업예시	업무내용
건강	간병인	병원, 요양소 등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노력
	장애인 활동도우미	장애인들의 안전 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미용	이발사	고객요구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 함
	미용사	고객요구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 함
복지	사회복지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상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요양보호사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뿐 아니라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등 심리적 지원
교육	방과후 아동돌보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돌보는 업무
	직업재활 상담사	장애인·실업자에게 직업소개뿐 아니라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자신감 제공
상담	청소년 은퇴자 생활관리사	개인들의 심리적 성숙과 사회 적응을 위해 말벗 대상이 되어 개인생활 전반적 코치
	숲해설가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광객과 끊임없이 의사소통
기타	기계경비 지도사	시설 및 운반 물품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노후우 전달
	반려견 도우미	건강과 위생상태 체크, 식사 제공, 산책 등 전반적인 돌봄 외에도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위해 노력

지표 1% 증가시 자동화 지표가 1.18% 줄어들지만, 75%까지 노동지표가 상승하면 자동화 지표가 0.06%로 부(-)에서 정(+)으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이 반복적 육체노동을 많이하면 할수록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 선임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고령층의 반복적 육체 노동비중이 1% 증가할 때 일자리 자동화는 4%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봄맞이 기지개 켜는 게임시장... 신작 꽃핀다

넥슨 상반기만 모바일 14종 출시
넷마블 아이돌 BTS 내세워 출격
엔씨 자사 게임 리니지 업데이트

국내 게임업체들이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을 떨칠 신작 출시로 봄맞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넥슨은 올 상반기 모바일 게임을 10종 넘게 쏟아내며 경쟁력을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12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를 이달 21일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모바일로 옮긴 게임이다.

원작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바람의 나라: 연’도 올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신규 IP와 해외 유명 IP를 활용한 게임도 출격을 앞뒀다. 일본 토호주식회사의 ‘고질라’ IP를 활용한 ‘고질라 디펜스 포스’는 100여 종의 고질라와 괴수가 등장하는 방치형 기지 매니지먼트 게임으로, 오는 5월 국내외 출시 예정이다. 일본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다크 판타지 RPG ‘시노앨리스’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및 글로벌에서 원빌드로 선보인다.

국내 인기 게임인 ‘야생의 땅: 듀랑고’도 상반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넥슨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넥슨 스페셜 데이’를 열고 올 상반기에 선보일 모바일 게임들을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전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버히트’는 상반기 내 150여개 국에서 론칭 및 사전예약에 돌입한다. ‘메이플스토리M’은 4월 일본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넥슨이 상반기 출시·해외 진출하는 모바일게임만 14종에 달한다.

김현 넥슨부사장은 “넥슨만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다양성 갖춘 모바일 게임을 대거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장르를 넘어 도전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 매각을 둘러싼 우려는 회사 외부와 관계없이 내부 개발과 퍼블리싱 진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불식했다.

넷마블은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내건 ‘BTS월드’ 출격 예정이다. 모바일 배틀로얄 다중접속속역할수행게임(MMORPG) ‘A3: 스틸 얼라이브’와 인기가작 ‘세

븐나이즈’ IP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즈’ 등도 출시한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인기 게임 ‘리니지’를 업데이트 한 버전을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리니지 업데이트 버전인 ‘리니지: 리마스터’는 ‘자동사냥’이라는 새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중견게임사도 신작 훈풍에 동참했다. 웹젠은 11일 ‘마스터캐킹’을 양 앱스토어에 출시했고, 조이시티는 14일 격투 게임 ‘사무라이 쇼다운 M’을 출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작 출시로 그간 부진했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 긴장감이 들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에만 14종이 넘는 신작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미세먼지 나쁜날, ‘KT MR 스포츠 체험존’으로 오세요”

KT는 KTH와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에 혼합현실(MR) 기술을 적용한 어린이 스포츠 체험존 ‘K-라이브엑스(live X)’를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K-live X 광복점은 KT가 보유한 MR 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스포츠 체험 공간으로, KTH가 운영을 맡는다. 지난해 9월 부천에 오픈한 중동점에 이어 두 번째다.

가상현실(VR) 헤드셋 등의 별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감형 콘텐츠를 즐

길 수 있다. K-live X 광복점에서는 객체 모션 인식, 멀티 트래킹, 다면 디스플레이, 모션 트래킹 등 KT의 MR 기술이 적용된 스포츠 콘텐츠가 제공된다. 축구, 농구, 트램펄린, 슈팅, 레이싱 5종과 복싱, 컬링 2종을 합쳐 총 7개 종목의 스포츠 콘텐츠로 구성했다.

KT는 K-live X 광복점을 기점으로 MR 스포츠 전용 체험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KT 모델이 부산에 오픈한 ‘K-live X’ 광복점에서 어린이 MR스포츠를 체험하고 있다. /KT